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빈부 제목 : 빈부에 처하는 비결 성경: 빌립보서 4장 10-14절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 4:10-14)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기록한 말씀이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있다. 아마 전에 빌립보교회가 선교헌금을 하였으나 한동안 끊어졌다가 이제 다시 선교헌금을 하게 되었나 보다.

바울은 너희들이 잊어버린게 아니라, 항상 생각은 하였지만, 기회가 없어서 그랬다고 위로 한다. 즉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 때가 되어 다시금 선교헌금을 하게 되었으니 기뻐한다는 뜻이다.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자신은 빈부에 처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 하였다.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스스로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적절하게 상황에 대처하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선교헌금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제까지는 가난함을 잘 견뎌

왔지만, 이제는 현금이 들어와야 하는 때가 되어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금 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기쁘다는 뜻이다.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신이 비천하게 되었을 때 더욱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

풍부하게 되었을 때 더 더욱 조심하고 겸손하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이 말씀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이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위기의 때를 모면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사람은 다른 동물들보다도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잘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질병이 있거나 어떤 율법주의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많다.

사람이 철이 들었다는 것은 때를 파악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뜻이다. 과일로 따지면 익었다는 뜻. (사람으로는 성숙했다는 뜻. 사람에게 는 여덟가지의 성숙단계가 있다. 성숙단계가 미숙하면 다음 단계의 성숙도 힘겨워진다. 필요한 영양소가 없기 때문이다. 성숙해야만 비로서 생성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다음단계의 성숙에 꼭 필요한데, 철이 덜 들므로 그 성숙 촉진 물질이 부족하게 됨으로 다음단계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결국 상황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때에 적절한 행동이나, 때에 적절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철이 들었다고 한다. 엉뚱한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에게 엉뚱한 말이 들어가면 때를 놓치거나,(기회를 놓치거나) 때가 지났으니 바뀐 계절에 걸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마귀가 엉뚱한 말을 집어넣으면 때를 모르게 된다. 그래서 부요함에 처하지도 못하게 되고, 가난함에 처하지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잠언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언 28장 26절)

특히 요즘들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주의한다. (보이스 피싱을 주의하시오!) 그러나 영적리더의 말을 듣거나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도 있다. 자기가 지혜로운줄 아는데,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지혜롭고 겸손히 자기의 때를 잘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

때가 이르기 전에 경고를 받으면 좋다. 스스로 자신에게 경고하는 것이 성숙.

채찍과 후회;때가 이르기 전에 하는 것은 채찍, 때가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은 후회. 채찍은 그 사람을 부하게 하고, 후회는 그 사람을 가난하게 한다.

그래서 빈부에 처하는 비결이란 쉽게 말해서 철이 드는 것이다.

부요하면 부요함에 걸맞는, 가난하면 가난함에 걸맞는 행동이나 말이 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성경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흔히들 사람들이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두 부류 다 인정하고, 치우침이 없이 진실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결코 부요함과 가난함의 차이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도 않으며, 모두가 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든지, 모두가 다 가난해져야 한다든지 하는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

또 이 두 부류의 이상적인 퍼센티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지만, 다만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그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부분 부요하게 살아갈 확률이 크다. 왜냐면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단호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엄격하게 대우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어느 정도 효과도 있겠지만, 그 가난이 구조적인 가난일 경우에는 오히려 상처가 된다.(인격적인 미성숙이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일단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부요한 자들이다. 다만 인생의 목적을 부요함에 초점을 두는 자들이 아닐 뿐이었다.

또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무작정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퍼주기를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성경은 갑자기 부요하게 되는 것을 최악으로 여기고 있다. 또 가난함이 마땅한 권리인 마냥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난함을 내세워 동정심으로 자신의 불의를 탕감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금하고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눈감아 달라고 하면 않된다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중에 경건하였다면 그가 부자가 되어도 경건

하면 좋다. 그가 부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경건하다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만약 부요한 사람이 부요한 중에 경건하였다면 그는 가난하게 되었어도 경건해야 한다. 그가 가난하게 되었어도 여전히 경건하다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가난하게 되는 것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은 국민 대다수가 부요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요한 사람들이 조금씩만 도와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